

다산포럼



석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총선이 끝난 지 열흘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더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패배의 충격으로 대통령은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3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 직후 총리와 대통령비서실 전면개편을 공언하면서 급한 불을 끄지만 그다음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의 국정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언급은 그를 비판해온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총간을 보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3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직후 대통령은 탄핵 지지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에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은 결국 그토록 회피해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증폭시켜 온 극단적 대립의 정치지형과 문화가 낡은 결과 때문

총선 이후 2주, 그리고 앞으로의 3년

이다.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가 훌륭한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아주 적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신망을 받는 인사들이 그의 정치적 멘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들과 거리를 두고 고심의 길 대신 편하고 달콤한 권력의 길을 선택했다.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최고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야당 지도자의 존재였다. 국민적 소통과 함께 적당한 거리에서 이들과 소통하고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대통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를 간단하게 외면했다. 검찰의 오랜 습성 때문인지 몰라도, 협치라는 단어는 아예 모르는 듯했고 지혜를 구하는 소통은 낯설기만 했다. 결국 '날리면' 논란을 계기로 패기가 만음이 되었고 '홍범도' 논란을 계기로 승리의 슬잔은 독배가 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은 그동안의 국정방향과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여소야대를 통해 균형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겸허하게 지혜를 모으고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사즉생'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그런 결단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 한국정치가 놓인 상황은 1990년 3당 합당이나 1997년 DJP연합의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명확한 양당 구조여서 선택의 폭이 좁다. 여

당과 야당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고 여야 모두 화해와 상생의 정치보다는 대립과 혐오의 정치에 익숙해있다. 협치는 규범적인 담론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협치의 유력한 방안은 총리 국회추천제인데 협재의 정치 지형상 이는 실현은 미지수이다.

거대 야당은 단호한 정권교체론과 온건한 협치론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협치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미묘하다. 여전히 여당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반감과 함께 협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공천권을 매개로 대통령이 여당을 일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선택은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대 과제는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저의 출생율과 양극화 문제의 해소, 대통령 권한 및 책임의 분산과 지지 확대, 근본적인 행정정책의 수립이다. 윤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서 작은 모퉁이이라도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이 세 가지 과제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진심으로 전력했다는 것을 앞으로의 3년 내에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진보정부는 진보의 벽을, 보수정부는 보수의 벽을 부셔야 한다는 역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이념적 공세와 절연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기독교를 가진 집단의 이해 때문에 이루지 못한 개혁의 일부를 담당해준다면, 최소한이라도 마지막 평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社說

윤-이 첫 회담, 협치로 '정치복원'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눈앞에 두게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강대강 대치를 풀고 협치의 골포를 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여덟차례 회담 제의를 모두 거부하다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나서기로 한 것은 4·10 총선 패배와 취임후 최저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23%)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도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거부해오다 협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 회담을 제안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 됐건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들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비롯한 민생 문제와 총리 인준, 특검부터 개헌까지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민

생 문제다. 의정 갈등은 불등의 불이다. 25일이란 의대 교수들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이달 말이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다. 첫 회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현안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신 3고(高)' 문제와 연계돼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도 논의 대상이다.

기억할 것은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선은 다해야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양보와 타협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면에서 실무자들의 준비 회담이 중요하다. 여야 당수간 대화에 앞서 양 측이 테이블에 올릴 과제를 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년만에 성사된 회담인 만큼 협치로 정치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길 바란다. 한번의 만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만나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풀릴 것 같지 않은 난제도 해법의 실마리를 보여줄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전남 떠나는 교사들 대책없나

매년 전남지역 유·초·중학교 교사들의 무더기 타 지역 유출이 반복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중도 퇴직자 현황'(유치원·초·중학교)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중도 퇴직(의원면직)한 전남 지역 교원은 총 289명에 달한다. 2021년 66명, 2022년 95명, 2023년 59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원 69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도 퇴직 인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73명이 임용 1년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교사라는 데 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3명이 교단을 떠났다. 교육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한 국·공립 및 사립 교원 330명 가운데 전남 교원이 97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합격률이 비교적 높은 전남지역에 우선 자리를 잡은 뒤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로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우선 꼽는다.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시군역을 제외하고는 관사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시설도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탓에 교사 수가 적어 담임은 물론 구, 행정, 각종 학교 행사까지 교사가 맡아 처리해야할 업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남 교사들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월 3만~6만 원에 그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교사들의 타 지역 유출은 고질적 현안 가운데 하나다. 교육청은 그동안 시행한 교원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총체적으로 교사 유출 문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지역 이탈은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학생과 부모가 전남을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갖는다. 영수회담이란 국가나 정치단체, 또는 사회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만나 의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담을 의미한다. '영수(領袖)'는 '옷깃(領)'과 '소매(袖)'에서 유래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옷을 만들 때 소매가 쉬운 옷깃과 소매 부분을 덧대 금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화려한 옷깃과 소매는 높은 신분을 상징했고 '영수'는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영수회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표는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와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제1야당을 국정 운영의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것이 군사독재 시절인 박정희 정부에선 5차례 영수회담이 열렸고 전두환 정부에서도 한 차례 이뤄졌다. 노태우·김

영상·노무현 정부에서는 두 차례씩 열렸고, 박근혜 정부는 양자회담 형식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유일한 정부였다. 영수회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대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모두 8차례 이뤄졌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역대 정부의 영수회담이 갈등만 더 키웠거나 형식에 그친 사례도 있다.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만 무엇보다 만남 자체가 큰 변화다. 그토록 거부해왔던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배경에는 집권 여당의 4·10 총선 패배에서 드러난 '민'의 가장 컸을 것이다. 아직 낱파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영수회담이 이뤄진다면 다행이다. 그동안 극한의 정치적 대립만 일삼아 보니 민생은 뒷전이었다는 만큼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란 '신(新) 3고(高)'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부터 챙겼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청춘 특특

'차마'라는 핑계로 말을 전할 수 없는 세상



조혜원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3년

었다는 사람부터 이렇게까지 진한지 몰랐다 등 흥미로운 반응들 속에서 문득 씁쓸함이 느껴지는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할 텐데, 왜 진즉에 쓰러고 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낮부끄럽다는 핑계로, 차마 이런 걸 쓸 그릇이 안 된다는 핑계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제쳐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가 봤다.

짧은 글 하나에 많은 걸 담으려면 상당한 고뇌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면 길게 전하면 되는 일 아닌가. 아무리 단순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사람은 누구보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다. 관계를 연결하며 그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데서부터 이미 단순한 몇 마디로 섭사리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풍선 몇 개로 하루를 아니 이틀을, 아니 어쩌면 한 해를 그렇게 낭비하고 만다. 전하지 못한 말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먼 훗날 후회와 함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예를 들면 가벼운 동생에게 함께하자고 붙잡는 후회부터 이미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표현할 걸 하는 후회까지 말이다.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그저 우리는 씩씩스러워서, 복잡해서, 귀찮아서, 불편해서, 이런 하찮은 이유로 기어이 저지르고야 만다.

장문에 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어 따라 발췌하는 문제도 있다. 글을 제대로 읽거나 요약하는 법, 단문을 나누거나 사소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지키는 일까지 소홀

해진다. 여러 번 고쳐 쓰고, 읽어보며, 익숙해지면 금방 이뤄낼 일들을 등한시하게 된다.

어린 학생들이 문제라고 함부로 말하는 어른들 또한, 예외는 없다. 글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을 강요하는 글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어른이 얼마나 많은가. 소통하지 못하는 글은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생기있던 사회를 침묵하게 만든다.

글을 쓰고, 읽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짧게 쓰려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길게 풀이내어 정성을 느끼게 한다. 혐오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벽을 조금씩 금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벽을 허물어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안 될 거라 마루어 짐작하며 점점 더 벽을 두껍게 만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예전보다 개방적이고 다채롭게 만들어 보자. 우리의 손끝과 정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글이 있고 글에는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물론 듣기에 좋고 하기에 편하지만, 마음의 무게를 가득 실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펜을 들어 정성껏 풀어쓰는 게 좋을 것이다. 후대용 티수가 됐다, 쓰다 남은 공책의 빈 여백이 됐다, 정식으로 쓰려고 남겨둔 편지가 됐다 그 어디든 간에 말이다. 너무 짧은 몇 마디로 취급당해당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단 몇 마디로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기에 아직 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기고

무안 통합 국제공항의 전제 조건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

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반영되었다.

첫째,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무안주인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광주전남 통합공항 건설을 전제로 했다. 공항 접근성 강화와 국제노선 신·증편으로 지역 거점공항에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으로 고속철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이 된다. 남부권에서 함께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와 경전선 전철이 조기 개통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공항이 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전남 통합공항으로서 중앙거리 국제노선의 운항과 약 1300만명의 여객을 수송하는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둘째, 민간-군 통합공항 입지는 지역주민의 자율 의사로 결정된다. 현재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부지의 관계 지자체장이 의사 표명만 하면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전부지 선정은 지역주민이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근거로 속의형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이 국방부에 관련 절차에 따른 계획수립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지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불

러올 것이다.

셋째, 소음 영향 대책과 보상 방안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군공항의 소음 영향은 다양하고 심각해서 이전부지의 소음대책 없는 이전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기존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파격적인 소음대책을 제안해 주민들의 입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의 소음 영향권을 그대로 적용해 무안통합공항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고 해당 부지 전체를 건설단계에서 보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광주 군공항보다 1.4배 넓은 군공항부지, 소음완충지역 등을 포함한 약 19㎢ 면적에 보상 대상이다. 공항운영 시의 소음원원은 별도 조사를 통해 국방부의 보상기준에 따라 월별 일정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넷째, 공항도시로서 무안군의 발전이다. 우선 소음완충지역 일부 부지는 업무·상업, 항공물류, 항공정비, 관광시설 등의 공항도시로 개발될 것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약 4508억원 규모의 복지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지원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해 서남권이 수도권과 동남권 등과 대등하게 대한민국 3대 도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안통합공항 입지로 예상되는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와 계획 중심의 토론과 협의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